

관광활성화 · 안전탐방 업무협약

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국립공원공단과 공사 원주 시에서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및 안전 탐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여행을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공사는 국립공원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코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트레킹 동호회 회원 등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홍보·유치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국립공원 콘텐츠를 국내의 관광 홍보소재로 활용하고 국립공원 내 관광안내표기에 대한 번역·감수도 지원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방한 외국인인을 위해 외국어 가능 안전산행가이드 인력을 신규로 양성하고, 안전산행가이드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도보여행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심여행 홍보물 상영과 안내책자 배포 등 안심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영배 사장은 "국립공원은 코로나19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둘러보며 도보여행을 즐



한국관광공사는 13일 국립공원공단과 공사 원주 시에서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및 안전 탐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는 중장년 세대 뿐 아니라 최근엔 MZ세대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관광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괄호를 받음하면 '과로'가 된다

'괄호가 많은 편지' 출간

작가 슬릭과 이랑의 첫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랑이 '트로피 경매' 퍼포먼스를 선보인 날이다.

이랑은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받아 무대에 올랐으나 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로피를 곧바로 경매에 부쳤다. 슬릭은 바로 그 자리에 관중으로 앉아 있었다.

수상 후보에 본인 이름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했던 그날의 슬릭에게 이랑의 트로피 경매 퍼포먼스는 충격을 줬다.

시상식에 가기 전 이랑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이랑의 퍼포먼스를 실제로 본 슬릭은 무대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두 사람의 편지는 시작된다.

행사장에서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던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던 도중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편지글에 괄호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괄호 속에 부연의 말이 들어 있기도 했고, 해명의 말이 담겨 있기도 했고, 상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본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A를 이야기하다가도 B에서 C까지 전부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겨우 가다듬어 괄호 속에 꼭꼭 눌러 담았는지도 모른다.

또, 괄호를 받음하면 '과로'가 된다. 두 사람은 앞날에 대한 조소함으로 일을 무리하게 많이 받거나, 혹은 일을 마구 벌이기



도 하며 달력에 가득 채워진 색색깔의 마감들을 소화해내느라 자주 과로한다는 점도 꼭 담았었다.

글에서는 괄호를 많이 쓰고 현실에서는 과로를 자주 한다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두 작가 사이에 서간에 세이에 담긴 '괄호가 많은 편지'들이 본격적으로 오간다.

/뉴스시스

부안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나도 아티스트'

19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1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이야기인 '나도 아티스트' 공연을 부안예술회관에서 오는 19일 저녁 7시 30분에 무료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나도 아티스트'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품의오케스트라 단원인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학생 중 재능이 넘치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연주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무대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부안군민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꿈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공연이다.

이번 연주회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신인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부안의 유망한 신인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하여 뜻깊은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북 최초의 민간오케스트라인 사단법인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신인 전공자들을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클래식 문화



를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여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건희 기증관, 대국민 사기극?

황희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 아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가칭 '국가기증 이관회 소장품관'(약칭 '이관회 기증관') 입지 철회 요구에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 아냐"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읍)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건희 기증관과 관련해 지자체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미 짜여진 각본이나 마찬가지로"라며 "대국민 사기극, 지방 우롱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안 아냐"라며 "국민 문화 향유권을 극대화 시키려는 기증자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증품뿐 아니라 리움에 있는 작품을 포함해 지방에서도 국립 거점 박물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을 반드시 병행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정읍시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추천 접수

8월 13일까지 추천 받아... 9월 25일 정읍시문화제 기념식서 시상

정읍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문화제가 열린다.

제32회 정읍시문화제는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정읍시공원 일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정읍시문화제 제정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32회 정읍시문화제의 '부도(婦道)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정읍사 부도상 시상은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부부 사랑과 아름다운 부덕(婦德)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다. 남편과 부모를 공경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성에게 주어진다.

부도상 추천 후보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읍·면·동장이나 기관단체장,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사)정읍시문화제 제



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제정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도상 시상은 9월 25일 제32회 정읍시문화제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문화제 제정위원회 홈페이지(www.jthf.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실(063-532-88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태환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